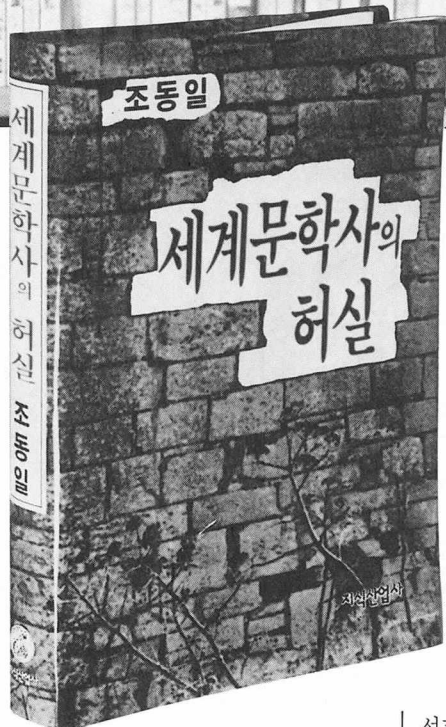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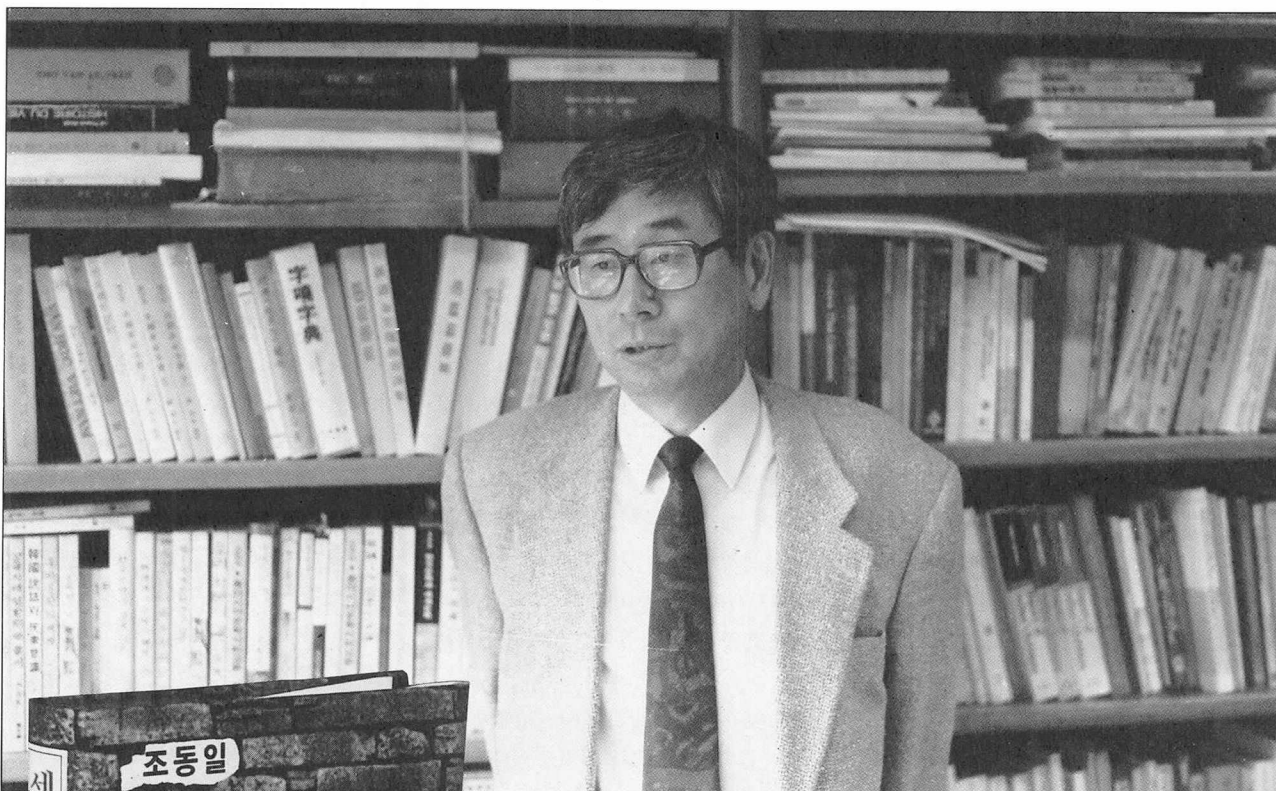


세계 학문의 수레를 끄다

《세계문학사의 허실》 펴낸 조동일 교수



세계문학사의 허상을 걷어내고 실상을 찾는 조동일 교수의 이번 작업은 총3부 8권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존의 세계문학사들이 모두 유럽문명권의 문학을 중심에 두고 있음을 밝히는 조교수는 헤겔과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제1, 2세계의 편향된 시각을 극복한 제3세계의 관점으로 세계문학사를 바라본다.

조교수가 내놓은 ‘세계문학사’라는 거창한 ‘테마’는 낯설기조차 하다. 과연 천차만별의 역사와 문화를 지닌 세계 각국의 문학을 통괄하는 시각과 이론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 정치,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은 영국이지만 위대한 문학은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그 존재조차 미미한 나라이지만 치누아 아체베라는 위대한 문인은 나이지리아를 문학에서는 세계 최상위의 나라로 올려 놓습니다. 문학이야말로 인종이나 정치, 경제적 우위에 의한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충실하고 효과적인 자료입니다.”

조교수는 현재 유포되고 있는 세계문학사의 허상을 밝히기 위해 1839년부터 최근까지 출간된 관련저작 38종을 분석한다.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까지 구사하는 조교수의 탁월한 외국어 능력이 이 작업을 뒷받침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 작업을 통해 조교수는 기존의 세계문학사들이 모두 유럽문명권의 문학을 중심에 두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이들 연구자들이 대부분 1세계, 2세계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

졌고 이를 극복할 만한 대안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들 연구자들이 지닌 문제들을 파 들어가면 근간을 이루는 역사철학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헤겔의 발전사관에 근거, 정치적 우열로 나머지 것들을 평가하는 1세계나, 사회경제사적 발전단계가 절대적 가치가 되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제 2세계의 역사철학이 문학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낳았다는 것이다.

조교수가 새롭게, 처음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세계문학사의 이론과 방법론은 이러한 1,2세계의 관점을 비판, 극복한 제 3세계 관점이다. 그것은 문학사 이론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철학이기도 하다. 조교수는 이를 ‘세계문학사역사철학’이라고 부른다.

학문도 생산해야 한다

조교수는 결코 쉽지 않을 이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다한 학사업무, 도서의 태부족과 강의 방식의 엄격한 규제 등이 그의 학문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들.

조교수는 얼마전 한 일간지에 <공개구직 사유서>를 게재했다. 지원자, 심판, 관중, 그리고 선수가 함께 해야 승리할 수 있는 스포츠처럼 학문도 성취를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고 믿는 그는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이 학문에서도 필요한 줄 알고, 가능하다고 믿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줄 곳”을 찾는다. 다행히 몇 군데서 응답이 와서 조만간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제 계획이 너무 거창해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것이 두려워 시작도 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있겠습니까?”

조교수는 자신이 걸어가고자 하는 학문의 길에 한치의 의심도 없다. 그는 그 길을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우리는 학문의 의존에서 자립으로, 이론의 수입에서 생산으로 방향을 돌려, 민족통일 설계의 벽찬 과업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세계학문의 수레를 끌고 앞으로 나서야 한다”

—박남정 기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각과 방법론으로 쓰여진 세계문학사는 없다. 세계문학사를 쓰는 일은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방대한 일이지만 그 이론적 토대와 방법론을 마련하는 일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도 가능하다.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조동일 교수가 최근 선보인 《세계문학사의 허실》(지식산업사)은 그의 학문 여정의 마지막 봉우리다.

한국문학사를 고찰하면서 정립한 이론적

성과를 세계문학에 널리 적용해서 보편적 의미를 확인하는 길이 스스로 설정한 그의 학문의 마지막 과제다. 총 3부 8권으로 구성된 이 작업은 세계문학사의 허상을 걷어내고 실상을 찾는 이번 책을 비롯하여 새로운 세계문학사 이론을 정립하고 실제 서술하는 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유럽문명권 중심의 문학사 비판

총체성, 역사성, 거대이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그것의 해체가 판을 치는 마당에